



4월 보고서

CARDO | LAGRING | ATONG | NARDA | KIKAY

목차

01

4월 스케줄표

4월 한 달 간의 스케줄 한 눈에 보기!!

02

아띠 소개

팡가시난에서 활동 중인 다섯 아띠 소개!!

03

활동지 이야기 <덤프사이트>

처음으로 아띠 클라세를 진행하다!!

04

활동지 이야기 <푸가로>

그린 하우스 다시 가꾸기!!

05

방우스 페스티벌 2016

김밥, 잡채, 구스볼!!

06

우리들의 이야기

4월에 있었던 재미난 이야기들!!

07

개인 에세이

4월 한 달 간 느낀 것들!!

08

기타 활동 사진

우리의 사진들!!

4월 스케줄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4/1 덤프사이트 따갈로그어 수업	4/2 연맹 사무총장님과의 만남
4/3 Mora Beach 방문	4/4 부재자 투표 실시	4/5 따갈로그어 수업	4/6 푸가로 활동 회의	4/7 푸가로	4/8 덤프사이트	4/9 한국선교사분과의 만남
4/10 휴식	4/11 덤프사이트	4/12 덤프사이트	4/13 따갈로그어 수업	4/14 푸가로 영어 수업	4/15 방우신 푸드 테스트	4/16 살라핑아오 방문 헤나
4/17 휴식	4/18 덤프사이트	4/19 덤프사이트	4/20 방우신 페스티벌 준비	4/21 방우신 페스티벌 & 방우신	4/22 휴식	4/23 휴식
4/24 휴식	4/25 덤프사이트	4/26 덤프사이트	4/27 3on3 농구대회 관람	4/28 푸가로 활동 회의	4/29 비자 연장일	4/30 덤프사이트 피딩 프로그램





ATONG | LAGRING | KIKAY | NARDA | CARDO

02

다섯 아띠 소개

“다구판의 매력쟁이들”

아띠 소개

서로가 서로를 소개해주는 유익한 시간



변동익(CARDO)

#변뽕끼 #푸푸맨(똥쟁이) #성님 #동익옹 #변갈도 #수염쟁이

나이 : 24살 (1993)
 사이트활동중에 항상 “킴!(코디네이터) I want Poopoo(똥!)”
 라고 외치며 똥싸러가는 우리의 동익옹.
 수염을 체크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성님의 목표는
 미생의 변요한처럼 머리기르기!
 (머리만 기른다고 되는 것이 아닌데...)
 하지만 착한 팀원들은 항상 응원해준다고 한다.
 - by, 박연수(NARDA)



조유림(LAGRING)

#할머니 #저질체력 #신데렐라

나이 : 23살 (1994)
 화장을 지우면 할머니가 되는 그녀.
 체대 준비생이었지만 최악의 저질 체력을 가진 그녀.
 밤 12시가 되면 낮이 나간 듯 웃음이 많아지는 그녀.
 할머니 같은 넓은 마음씨로 남다른 매력을 내뿜는
 그녀!!! 아주 매력적이고 알 수 없는 그녀다!!
 - by, 서현식(ATONG)



서현식(ATONG)

#코디네이터 #맥쓰사 #코피코중독자 #라마 #춤꾼

나이: 24살(1993)
 우리팀 유일한 혼혈왕자.
 뚜렷한 이목구비 때문에 코디네이터라고 오해를
 많이 받는다. (본인은 그걸 즐기고있음) 맥북과
 카메라는 그의 최애템. 코피코 커피에 빠져 하루
 에 한 잔씩 꼭 티타임을 즐기는 감성소년이다.
 한국에서의 춤꾼은 어디로가고 지금은 그저
 리듬을 즐기는 한마리의 라마가 되어가고 있다.
 - by, 이다운(KIKAY)

아띠소개

서로가 서로를 소개해주는 유익한 시간



이다운(KIKAY)

#요리 #인형 #막내 #생각이 깊다 #여장부

나이 : 21살 (1996)

이다운썬의 지휘하에 아띠하우스의 부엌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우리팀의 막내이지만, 막내같지않은 팀원으로 생각하는것은 나이가 있어보인다. 성격또한 시원시원하며 여장부 스타일이다. 하지만 FINN인형을 좋아하는 천상여자인 막둥이다.

- by, 변동익(CARDO)



박연수(NARDA)

#퍼피 맘 #뎀석기 #개구쟁이 #연수 똥똥햄

나이 : 22살 (1995)

우리 팀의 분위기 메이커인 그녀.

항상 웃음이 많아 주변사람들이 장난을 많이 친다.

이웃집 강아지를 엄마처럼 많은 관심을 쏟아부어

강아지의 사랑을 받고있다. 밝은 미소가 매력적인 그녀.

- by, 조유림(LAGRING)



03

활동지 이야기 <덤프사이트>

“뚝자리를 펴서 친구들을 모아보자”

4월의 활동 목표

4월의 덤프사이트

01

1주차)
4월의 덤프사이트 활동을 위한 계획을 세웠다.

02

2주차)
Left side에 처음으로 돛자리를 가져가서 아이들을 모아봤다. 간단한 색칠공부 활동을 했다.

03

3주차)
Right side에서 돛자리를 펴고 간단한 색칠공부 활동을 했다.

5주차)
피딩 프로그램 진행. 주민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좋은 시간을 가졌다.

05

4주차)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아이들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알파벳 및 숫자 카드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였다.

04

4월의 활동 결과
처음으로 돛자리를 펴서 친구들을 모았고, 아띠클라세를 진행해봤다. 친구들의 기본적인 수준을 알아볼 수 있었다. 평균 집중 시간은 15~20분 정도였으며,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친구들(우리나라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은 알파벳과 숫자까지 알고 있었고, 그보다 어린 아이들은 아예 모르거나 조금 아는 수준이었다. 다음 달 부터는 수준별로 교육을 진행하여 보다 많은 것들을 교육하기로 했다.

아띠클라세

4월동안 아띠들이 덤프사이트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프로그램.



종이접기

색종이를 이용해서 다양한작품을 만든다.



색칠공부

흑백의 그림을 인쇄하여 아이들이 원하는 색으로 칠한다.



알파벳 및 숫자 교육

기본적인 알파벳과 영어로 숫자 읽는 방법을 익힌다.



딱지치기

딱지를 접어서 딱지치기 게임을 한다.



상처치료

상처가 있는 아이들을 찾아 상처에 필요한 약을 바른다.

이외에도 집집 마다 방문하여 필요한 상처치료를 해주는 House to House Care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피딩 프로그램

아이들과 주민들이 함께 나누는 식사 시간.



덤프사이트에 있는 블루하우스에서 주민들과 함께 기닐링(야채, 고기 볶음)과 밥 그리고 오렌지 주스를 먹었다. 주민들은 각자 본인의 식기류를 챙겨왔고, 우리는 그들과 음식을 나누며 좋은 시간을 보냈다.



피딩 프로그램은 주민들과의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피딩 프로그램을 통해 평소에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고, 특히, 평소보다 어른들과 많이 소통을 나눌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

4월의 덤프사이트



CARDU

4월 초까지도 능동적으로 덤프사이트를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후 멤버들과 충분한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은 수동적으로 덤프사이트를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피딩프로그램을 실시하였는데 주민들과 아이들과 더욱 가까워질수 있었던 시간이여서 너무나 좋았다.

활동 후 항상 아쉬움이 남아있었다. 왜냐하면 활동이 즐겁고 재미있었지만, 항상 준비의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겨주고, 모여주고 참여하며 즐거워해주는 아이들. 요즘은 그들을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낀다. 더 분발해야겠다. 아이들을 넘어서,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NARDA



KIKAY

아이들이 알아서 모이고 씻는 모습을 보며 전 기수들의 활약을 많이 느꼈다. 웃지 않아 아이에게 혼이 나면서 내 부족함을 많이 깨달았다. 가르치러 들어갔다 도리어 배우고 나온 느낌을 받았던 한달이었다. 다음달에는 더 활짝 웃는모습으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활동을 할 것이다.

‘도전’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한 달이었다. 아이들과 무언가를 함께 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한 것 같다.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기도 했고, 때로는 불만족스러운 경험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아이들과 함께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뿌듯하고 아이들에게 고맙기도 하다. 이제 어느 정도의 관계를 형성했고 서로를 조금 더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활동, 그리고 다양한 도전들이 기대가 된다.



ATONG



LAGRING

4월에는 아티클라세를 진행하였다.
 돗자리를 펼치면 아이들이 저절로 모여들었고 몸 놀이인 딱지치기와 색종이 접기를 좋아했다.
 한층 더 나아가 영어와 숫자 수업을 진행 하였을 때 수준별 차이가 발생하였고 5월에는 나눠서 진행 할 예정이다.
 상처치료부분을 보면 3월에 비해 4월에는 상처 치료하는 인원이 점점 줄어든다. 그만큼 상처들이 점점 나아가고 있다는 좋은 영향이 있다 본다.



04

활동지 이야기 <푸가로>

“작물 재배를 위한 기초 다지기”

4월의 활동 목표

초기 상황

초기의 그린하우스는 한동안 관리가 되지 않아서 지저분한 상태였다. 잡초도 많이 자라 있었고, 주변에 쓰레기도 많았다.



잡초 제거 및 청소

우리는 코디네이터들과 함께 청소를하기로 했다. 잡초도 뽑고 쓰레기를 치우는데 생각보다 비닐이 너무 많이 나와서 놀랐다.



흙갈이 및 마무리



푸가로외 흙이 바다 모래와 비슷해서 물이 잘 흡수되지 않아, 흙에 물을 주고 뒤엎는 작업을 반복했다.
 처음엔 작물들을 제거하지 않고 물을 주는 등의 노력을 통해 다시 키우려고 했지만,
 이미 죽은 작물들이 많아 전부 다 제거했다.
 우리는 다시 작물을 심기 위해 텃밭을 새로 가꾸었고, 어떤 작물을 심을지 고민하기로 했다.

4월달의 푸가로 활동은 방우스 페스티벌로 인해 일정이 겹치거나
코디들의 사정으로 인해 자주 방문하지 못하였다.

그로 인해 우리는 푸가로 활동에 대한 필요성에 의문이 들어 활동 회의를 자주 했었다.

우리의 고민들

Q. 그린하우스의 목적은 어떻게 되었나?

처음에는 그린하우스가 장기적으로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많은 고민을 했어요.
우리는 우선 아띠들이 없어도 장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7월까지 그린하우스를 진행하고, 활동하는 동안 만나는 푸가로 사람들과 검사검사 350PPM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활동들의 연결고리가 되어줄 그린하우스 활동을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Q. 푸가로 활동을 주 2회 수,목 연달아 가는 것이 적합한가?

흙이 물을 잘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주 흙을 관리 해주어야 하더라구요.
그래서 연달아 2일을 가는 것 보다
주 3회 격일 월,수,금을 가는 것이 그린하우스를 관리하기에 좋을 것 같아 5월부터는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Q. 우기인 7~8월이 지나면 태풍으로 인해 그린하우스의 지속가능이 어려울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우기 동안에는 작물재배가 어렵기 때문에 7월 전까지 작물들을 길러 재배한 후 그 후에는 보수작업을 합니다.
우기가 끝나고 아띠들이 귀국하고 나면 Y에서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지속가능을 이어가기로 약속했어요~.

Q. 식물재배가 힘든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그린하우스를 진행할 것인가?

코디네이터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강한 햇볕을 막기 위해 지붕을 만들고, 주변에서 좋은 흙을 구해와 양분을 더하는 방법으로 환경을 개선 할 계획이에요.

4월의 푸가로



LAGRING

비자, 방구스축제, 현지코디네이터 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4월은 푸가로 활동을 많이 하지 못했다. 3월에 혼란스러웠던 푸가로에 대해 우리는 많은 회의를 거쳐 목적과 동기를 찾고 5월에는 일주일에 3번으로 늘려서 가기로 하였다. 그린 하우스를 정성을 다해 가꾸기로 하였다. 열심히 할 것이다.

몇 번의 회의를 통해 우리만의 목적을 찾으니 이제 어떻게 할지 알겠더라구요. 4월은 일정이 많이 겹쳐 푸가로를 많이 가지 못했는데 5월은 활동날짜도 더 많아지고 틀도 잡혔기 때문에 열심히 가꾸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늦게 시작을 하는건가 싶기도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때 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 할 것이예요!



KIKAY



ATONG

지난 3월의 활동과 마찬가지로 4월의 푸가로 활동 역시 목적을 찾기가 힘들었다. 방문하는 횟수도 현저히 적었고 일정이 취소 될 때마다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생겼다. 활동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우리 끊임없이 활동 목적에 관한 고민을 해왔고, 수많은 회의를 통해 결국 활동 목적을 찾았다. 처음 2달 동안은 목적이 불분명한 상태로 활동을 했지만,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는 푸가로드.

어영부영 넘어간 날 이 더 많았던 사이트다. 그래서인지 회의의 필요성을 느끼고, 어느때보다 진지하게 회의했던 곳 이다. 그 회의로 우리의 그린하우스에 대한 틀이 잡혀졌고, 우리팀원모두 열기가 오른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제까지 미룬 날 이 더 많았으니 5월부터는 그만큼 더 제대로, 1일이 10일인 것 처럼 활동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NARDA



CARDO

고민이 많았던 활동지 였다. 그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것 들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다. 이것에 대해 동료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고민이 해결이 되었다. 잠시 주춤 했지만 다시 힘주어 푸가로를 시작할 것이다.

The Happiest Fish Festival Ever!



BANGUS FESTIVAL

2002년 부터 시작된 다구판 지역의 가장 큰 축제로서,
 팡가시난의 특산물인 '방우스(영어로는 milk fish)'와 관련된 축제이다.
 보통 한 달 간 진행되는 축제로서,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음식들을 길거리에서 맛볼 수 있다.



BANGUSINE

Bangusine(방우신)은 방우스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축제이다.
 이 날에는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맛 볼 수 있는 날이며,
 모든 음식에는 방우스가 들어가야 한다.
 우리 아띠들은 필리핀 사람들에게 한국의 음식을 맛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 알리고자 방우신에 참여하였다.

방우신 페스티벌 준비 및 푸드 테스트



4월15일 갑작스럽게 Food Testing을 하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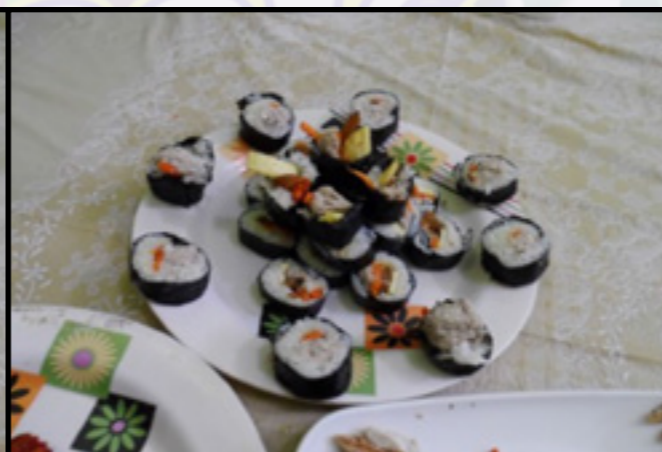
아침부터 장을 본 후, 오랜 시간에 걸쳐 김밥, 잡채, 구스볼을 만들었다
YMCA식구들이 맛을 본 후, Feedback을 해 준 것으로 푸드테스팅을 마쳤다.



<구스볼>



<잡채>



<김밥>



<완성>

*구스볼이란?
구스볼은 비린내를 제거한 생선(방우신)을 구운 후 갈아 채소(당근, 양파)와 함께 반죽한 생선 튀김볼이다.
여기에 한국의 양념치킨소스를 버무려 완성하였다.

방우신 페스티벌 당일



방우신 전날, 김밥과 잡채에 들어가는 재료는 모두 다 다듬고 볶기까지, 방우스는 반죽과 양념 완성단계까지 준비하였다.
 방우신 당일날 아침 6시부터 아띠들은 기상하여 각 음식마다 300인분, 총 900인분을 핑거푸드 형식으로 만들기 시작하였다.
 모든 음식을 준비한 후에는 아띠들이 손수 만든 부스꾸미기 재료로 부스를 꾸민 후, 한국에서부터 공수해 온 한복을 입고 음식을 나르는 등의 축제 준비를 하였다.



축제때, 예쁜 한복으로 아띠들은 많은 시민들과 사진을 찍으며 한복의 미를 알릴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준비한 한국음식들을 좋아해주었고, 생각보다도 빨리 음식이 품절이 되었었다.
 그리고 우리는 2등이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아띠들만 하였더라면 많이 힘들었을 텐데, 다행히 YMCA식구들이 도와주어 즐겁고 수월하게 진행 할 수 있었던 방우스 축제였다.



BANGUSINE FESTIVAL





06

우리들의 이야기

4월에 있었던 재미난 이야기들!!

Mora Beach에 가다



<해변에서>

필리핀 연맹 팝 총장님과 지미 총장님과 함께
지프니를 2시간 30분 가량 타고
우리는 Mora beach 해변에 놀러 갔다.

이렇게 이쁜 해변이 있었다니!!
물이 정말 깨끗했다. 바닷물 염분이 높아서 인지 몸이 잘 떠다녔다.
다같이 신나게 놀고 뛰 다니는 시간 이였다.

총선 부재자 투표

총선 투표를 하기 위해서 새벽2시 심야버스
(팡가시난→마닐라)를 타고 5시간을 달려 마닐라에 도착하였다.

대사관에는 한국인이 많이 계셔서 반가웠다.
영사님께서 우릴 반겨주셨고 우리는 라온아띠 그리고 봉사활동에
대해 설명해드렸다.

투표를 한 후 지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투표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였다.



<대한민국 대사관 앞에서>

살라핑아오

Salapingao : 푸가로와 가까우며, 과거 라온아띠가 활동했던 사이트 중 하나이다.



토요일 휴일을 이용하여 13기와 친분을 쌓았던 살라핑아오의 청년들을 만났다.
우리의 활동지인 푸가로의 옆 섬마을이라서 항상 배를타고 이동할때 눈으로만 봐 왔던 곳 이었는데
방문을 하니 신기하고 새로운 기분이었다.

살라핑아오의 초등학교



살라핑아오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를 기다리던 3명의 친구들과 함께
그 곳을 걸어다니며 주민들을 뵙고, 초등학교를 방문하고, 양식장에 갔었다.

길을 걸어가며 만난 주민들 모두 반갑게 인사해주시는것을 보며 전 기수가 얼마나 관계를 잘 맺어 왔는지 알 수 있었다.

양식장에서는 물고기 밥을 주는 경험도 하고, 시원한 오두막집에서 낮잠을 자는 등의 여유를 즐겼었다.

팀원 모두 살라핑아오 방문을 즐기며 좋아했다.

이 때 만났던 3명의 청년들과는 인연이 되어, 친구들이 당일에 방우스 페스티벌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아티스트 “Jerven” 과 함께〉

한국음식을 먹다!!!

3월 말, 비자를 받으러 갔다가 우연히 선교사로 활동을 하시는 분을 만났고 4월 초, 우리는 저녁식사에 초대 되었다.

음식이 준비되는 동안, 우리는 그 마을에 살고있는 아이들과 즐겁게 놀았다.

그 후 우리는 오랜만에보는 닭볶음탕과 그 외에 김치, 깻잎장아찌 등을 먹으며 근 1달만에 한국을 다시 느꼈었다.

또, 4월 말 쯤에는 한국분이신 집 근처 환전소 사장님네 집에 초대되어 김치찌개와 바베큐를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외국에서 보는 한국인이라 더 반가웠고, 잘 챙겨주신 한국분들의 정에 감사드리게 되었던 시간이었다.



〈마을 어린이들과 함께〉

문신을 하다!

YMCA 봉사자인 “절빈”이 라온아띠 친구들에게 헤나를 해주었다. 자기가 해보고 싶은 캐릭터나 의미 있는 문양 및 글을 팔뚝에 그려본 날 이었다. 팀원들 모두가 헤나를 처음 접하여서 새로웠으며 다들 만족하였다.

헤나는 일정시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우리끼리 마니또



팀의 막내 다운이의 제안으로 시작하게 된 우리만의 프로그램.
 각자 200페소(한화 약5000원)를 가지고 마니또를 뽑아 마니또 발표 날까 까지 그 사람에게 줄 만한 선물을 준비해
 당일날 선물을 전하는 훈훈한 프로그램이다.

동익->다운 : FINN인형
 다운->연수 : 지갑(원래 250페소였는데 깎아달라고 협상해서 200에 삼)
 연수->동익 : 새우같이 생긴 로고의 슬리퍼
 현식->유림 : 유림의 취향과 전혀 맞지 않는 비즈
 유림->현식 : 50페소(약 1200원)짜리 나시티와 남은돈으로 Kopiko커피,간식 등

개인 에세이

LAGRING (조유림)

4월달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달 이여서 인지 정신없이 한달이 지나갔다. 덤프사이트에서는 넬라린이 멜라(여자아이)를 출산 하였고 내가 배속에서 만 보았던 아이가 눈앞에 있다는것에 대해 신기하고 아름다운 생명이 태어나 축복 하였고 축하해 주었다. 3월에는 덤프사이트 아이들이 상처가 많은 편 이었는데 4월달에는 아이들 상처가 점점 눈에 띄게 줄어들어 가는 것이 보인다.



〈넬라린(엄마 15), 멜라〉

생활편으로는 3월에는 롤리와 김이 요리를 해주었다면 4월에는 우리가 장도보고 요리도 해먹고 스스로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직접 현지음식도 만들어 먹고 한국이 그리워 된장국과 잔치국수를 해먹고 점점 만들어 먹으니 요리가 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4월의 시간을 돌아봤을 때 행복한 순간을 만들어 준 아이들이 생각이 난다.

3월에 비자신청하면서 만났던 한국인 선교사 분들과 연락이 닿아 집 초대를 받은 후 팀원들과 주말에 놀러가 닭도리탕 먹었던게 생각이 난다.

거기 동네 아이들과 신나게 놀았는데 우릴 처음 뵈음에도 우릴 많이 좋아해 주었다. 아이들이 꽃을 꺾어서 꽃을 받으라며 선물을 주고 내 무릎에 흠이 묻어있었는데 흠을 털어주고 내 귀에 I Love you 라 말해주고, 이름을 기억해주고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아도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순간 되게 행복 하였고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웠다.



Q. 4월이 지난 지금 변한점이 있다면?

-매일 저녁마다 운동을 꾸준히하고 있기에 체력이 많이 좋아졌다.

-내 생에 처음으로 헤나를 해보았다.

(4/16일 Y봉사자인 절빈친구의 도움으로)

-모기에 물리기 싫어서 현지에서 파는 OFF! 모기로션을 매일 바르게 되었다.

-에너진 바닐라맛(우유+씨리얼이 섞인 음료)을 좋아하게 됨.

KIKAY (이다운)



원래 내 평소 표정은 무표정이다. 입이 작아 입 꼬리가 내려가 있고, 그렇게 살아왔다보니 오랫동안 내려가있던 입 꼬리를 올리려면 웬만히 올리지 않고서야 미소를 머금은 표정이 힘들다. (정말 웃길 때는 웃지만) 그래서 그랬던 건지, 하루는 덤프사이트에서 수줍음이 많은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 다가갔는데 갑자기 아이가 울음을 터트렸다. 원래 아이들을 좀 어려워하는 편이라 덩달아 당황했던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었고, 아이를 위해(?) 자리를 피해주었다.

나는 내가 표정이 무표정이고 입 꼬리가 내려가 있는 것이 그저 내 개성 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래서 그렇게 웃지 않는다는것에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내가 그 자리에서 그것을 단순히 내 '개성'이라 생각하는것은 맞지 않았구나 생각했다. '개성'을 추구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지만, 그것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 있었고, 그것은 내가 세상과 얼마나 조화로운가에 대한 것이었다. 그래서 요즘은 '나다움'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세상과 조화롭기 위해서 웃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하고 있다.

활동을 하면 할수록 내가 하는 일이 그리 큰일까지는 되지 못하는 것을 느낀다. 생각해보면 평범한 삶, 그 시간을 함께하는 내가 뭐라고 ‘특별한 추억’ 또는 ‘행복한 시간’을 공유할 수 있을까. 큰일은 하지 못하는 나와, 하지만 그래야만 할 것 같은 생각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인생은 롤러코스터와도 같아서,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기 마련이라고 했다. 그 말을 생각해보니 문득 내가 활동을 하며 만나는 친구들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그러다, 엄마와 통화를 하다 “오늘도 별일 없어” 라는 나의 말에 엄마가 “그래. 별일 없는 게 가장 좋은 거지” 라고 대답하셨다. 그 말을 듣고, 그들과 평범한 시간을 공유하는 나로서 그들을 생각하는 법을 깨달았다. 그저 별일 없는 그들의 하루를 바라는 것. ‘좋기만’을 바라는 나의 ‘욕심’을 버리고 ‘별일 없는’ 삶을 생각 하고 그 평범한 시간을 함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보면 이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겠지.

얼마 전 내가 거실 선풍기를 깨먹는 바람에 선풍기가 2개에서 1개로 줄었다. (언니 오빠 많이... 미안^^) 5명이 쓰기에 부족해 머리를 말릴 겸 밖으로 나갔는데 선선한 자연바람의 느낌이 너무 좋았다. 나는 내가 활동하는 곳에서 내가 무언가를 깨닫고 행복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행복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툭 하고 나왔었다. 깨달음을 굳이 활동지에서 찾으려 했던 것도 내 욕심이었구나 싶었다.

이대로 ‘욕심’들을 놓게 된다면, 아마도 앞으로는 내가 좀 더 여유로워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시간이 갈수록, 내가 정말 원하는 모습인 ‘여유로움을 가진 내 모습’이 점점 기대가 된다. :)



ATONG (서현식)



뒤돌아보니 4월이 끝났다. 분명 며칠 전에 3월 보고서를 제출 했었는데, 벌써 4월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나를 비롯한 우리 팀원들은 3월보다 훨씬 많은 고민들과 마주하였다. 우리 처음으로 덤프사이트에서 돛자리를 펴고 아이들과 함께 무언가를 했고, 활동 목적이 불분명해서 활동을 포기할까 했었던 푸가로는 끝내 활동 목적을 찾아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다. 유독 이번 4월은 대화를 많이 하고 서로를 많이 믿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던 한 달이었다. 늘 혼자 고민하고 혼자서 해결 방안을 찾으려 했었는데, 요즘은 고민거리가 생기면 팀원들을 항상 찾았고 팀원들 또한 내가 고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며 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많이 했다. 어쩌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으나 나에게는 분명 새롭고 신선한 경험이다. 또한 낯을 많이 가리는 내가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도 호의적으로 변해가고 있고 웃음이 점점 많아지는게 느껴진다. 아띠하우스(우리 숙소)에서 지내면서 때로는 망가지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또한 팀원들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것도 너무 즐겁다.



그러면서도 가장 크게 변해가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내가 마주하는 고민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해보야겠다는 긍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전의 나는 어떠한 문제와 마주하게 되면 긍정적, 부정적인 조건들을 정리하며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제 불과 2달을 지냈지만, 작은 부분에서도 변해가는 나를 보는게 신기하다.

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게 많이 어색하고 쑥스럽다.

활동이 다 끝난 후에 내 에세이들을 볼 때 아주 재미있어 질 것 같다.

5월에 봅시다!!!

CARDO (변동익)



이번달은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흘러간 느낌이었다. 4월초의 일정들을 보면 연맹총장님의 방문, 투표, 한국선교사집 방문, 홈스테이집 방문, 대학축구참여, 등등이 있었다.

처음에는 놀러만 다니는 느낌이 들었다. 나눔시간은 영어로 진행이 되면서 가벼운 내용으로만 이야기가 오갔다. 4월 중순으로 가는 시점인데도 마냥 3월인듯이 즐기고 놀기만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우리팀이 우리 모두가 대표라는 좋은 의도때문인지 놀면서도 정신 차리자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방구스 페스티벌을 무사히 잘 마치고 4월말이 되어서 우리는 우리들만의 시간을 갖었다. 지금까지 놓쳤던 부분들이라던지 코디네이터들에게 요청하고 싶은것들 등등을 나눌수 있었다.

덕분에 다시 정신을 차릴수 있게 된것같다.



그리고 조금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았던 4월이었던것 같다. 나의 이기적인 모습과 단점이 보였다랄까?
 흠...필리핀오기전에 역할의 전담화는 좋지 않다라고 했지만, 정작 내가 아니니까 몸이 편해지고 그걸 즐기고 있었던갔다.
 달콤함에 취한느낌이랄까? 이런 생각을 하니 나때문에 고생했을 팀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이미 지나간 일들은 어떻게 할수가 없으니 남은 일정동안은 이전보다는 헌신적이고 행동으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NARDA (박연수)

첫 달에 비해, 두 번째 달은 너무 달랐다.

3월은 마냥 행복하고 즐거웠었다면, 4월에는 너무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을 많이 느꼈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딱히 어떠한 활동을 하지 않아,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었다.

그리고, 전 기수의 보고서를 읽을수록 더 뒤쳐졌다는 생각이 들어 조급해졌었다.

쉐어링을 할 때에, 지금의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걸음을 걷는 것 뿐 이라는 말을 듣고 조급해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늦었다고 생각 말기, 비교하지 말기”
요즘은 이 문장을 반복해서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4월 동안 나는 알게 모르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었나 보다.
나는 내 자신도 모르게 나만의 소진(Burn Out)을 시작하고 있었다.
무기력하거나 활동에 지쳐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나의 감정기복은 심해졌고, 한숨은 깊어졌고, 일기 속의 나는 힘들어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생각이 복잡해지면 그냥 집 밖으로 나가 가만히 앉아서 바람을 느낀다.
마냥 바람을 맞고 있으면, 내 머릿속의 많은 생각들이 정리가 되는 느낌이랄까..?
내게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에 신기함을 느낀다.

나는 나를 단순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다.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직관에만 따르는 사람인 줄 알았다.
하지만 사실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 애초에 많은 생각을 끊어내는 것 이였다.
생각을 잘 안 해서 생각 정리하는 법을 몰랐는데, 여기서 차차 나만의 방법을 찾는 중이다.

요즘에 즐겨하는일은 찍힌 사진들을 보는 것 이다.
내가 상대방을 바라보았을때, 어떤 표정으로 대하는지 그리고 그 상대방도 나를 어떤 표정으로 봐주는지, 사진은 알려주고있었다.
사진을 보니 시간이 갈수록 나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사진을 보다가의 습관 중 하나가 눈동자를 보는 것 이다.
사진속 눈동자 하나하나를 보다 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눈이 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진다.
그 후로부터 더더욱 사람을 만났을 때에 눈을 맞추는습관이 생겼다.

벌써 4월이 가고 5월이 시작되고있다.
5월에는 나만의 소진(Burn out)이 종지부를 찍고,
나와 만나는 사람들과는 서로의 모습을 눈에 담은 시간이 많아지길 소망한다.



감사합니다

-RAONATTI 15TH BATCH, PANGASINAN-

